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표기법 양상 연구

나윤기*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표기법 양상
 - 1) 경음 표기
 - 2) 중철, 분철 표기
 - 3) 받침 표기
 - 4) 사이시옷 표기
 - 5) '·'의 표기
 - 6) 구개음화 표기
 - 7) 두음법칙 표기
 - 8) 단모음화
 - 9) 장단음 표기
3. 맺는말

【초록】

일제 강점기의 국어는 근대후기 국어와 현대국어를 잇는 과도기로서, 두 시기의 표기상의 특징이 혼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근대적 성격을 띤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 표기 방식은 현대국어 표기법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국어의 음운 현상과 연계시켜 그 표기 양상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한자 자전이 지닌 자료적 가치와 시대적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일제강점기 한자자전, 표기법, 한글 뜻풀이, 국한문신옥편, 자전석요, 신자전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 (nayungi@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1443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해례』를 통해 창제 원리와 표기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것을 기반으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 당시의 여러 문헌은 규칙적이고 정연한 표기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글은 공식 문자인 한자에 비해 ‘언문(諺文)’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문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까닭에, 국어의 음운 변천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표기법의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종래의 엄격한 표기체제는 점차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되었다. 언어 변화의 실질을 반영하는 표기체제의 미비로 전대의 표기 관습을 계승하는 혼란 상황은 20세기 초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외세에 의한 개항(開港)과 함께 외래문화의 유입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동은 민족의식의 각각으로 이어졌으며 각종 간행물, 사전, 종교서적 및 신교육제도에 따른 교과서 등이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새로운 문체의 형성과 신조어의 대량 출현은 자연스레 대중의 문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국어의 중요성과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07년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고 1909년에 형태 표기에 입각한 『국문연구의정안』¹⁾이 나왔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식민지 정책에 따른 어문정책의 일환으로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30년의 『언문철자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국권이 상실한 상태일 뿐 아니라 미흡한 부분도 많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33년에 이르러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하여 비로소 한글 맞춤법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광복 후 이에 의거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마침내 현대 한글 표기법이 제정되었다.

문자란 인간의 말을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 체계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화기에 비록 공식적인 한글 표기의 전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각종 서적을 통해 사회에서 규범으로 정해진 일정한 표기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를 잇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표기법 관찰은 근대 국어에서 현대국어의 표기법의 발전 과정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출판된 근대적 성격을 띤 한자자전에 국한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인 정익로의 『국한문신옥편』(1908)과 후속 자전인 『자전석요』(1909), 『한선문신옥편』(1913), 『증보자전대해』(1913), 『신자전』(1915), 『신정의서옥편』(1921), 『자림보주』(1924), 『모범선화사전』(1928), 『대증보일선신옥편』(1931), 『실용선화대사전』(1938) 등이 있다. 이들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국어의 음운 현상과 연

1) 1909년 국문연구소가 국어 맞춤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에 관해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

게시켜 당시의 표기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한자사전의 표기법 양상

1) 경음 표기

15세기의 ㅅ계, ㅈ계, ㅊ계의 합용병서는 17세기의 혼기(混記) 과정을 거쳐 19세기 전후에 ㅅ계로 합류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에 ㅅ, ㅈ, ㅊ, ㅅㅈ, ㅅㅊ, ㅈㅈ, ㅈㅊ 등 7개로 유지되다가 개화기에 이르러 모두 ㅅ계로 통일되었다.²⁾ 개화기 교과서에서 ㅈ과 ㅅ이 혼기되는 양상이 보이지만³⁾ 일제강점기 한자 사전에는 어두 합용병서⁴⁾ ㅅ, ㅈ, ㅊ, ㅅㅈ, ㅅㅊ만 보이고 ㅈ계 병서인 ㅈ, ㅈㅈ, ㅈㅊ은 이미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 ㅅ

국한문	석요	한선문	신자전	자림
鵲 ㅅ치	簾 ㅅ부를	澀 ㅅ알홀	破 ㅅ트릴	苛 ㅅ다를
剥 ㅅ글	悟 ㅅ다를	憬 ㅅ우칠	尻 ㅅ문이	捌 ㅅ칠

(2) ㅈ

국한문	석요	대해	의서	모범
地 ㅅ	垢 ㅅ	採 ㅅ	痲 ㅅㅅ	汗 ㅅ
痲 ㅅ지	柴 ㅅ나무	苞 ㅅ기	墜 ㅅ러질	鬧 ㅅ들

(3) ㅊ

국한문	한선문	신자전	모범	회중
秀 ㅅ여날	速 ㅅ를	扒 ㅅ	奪 ㅅ아슬	廳 ㅅ은바람
沒 ㅅ질	嘔 ㅅ	趁 ㅅ리거를	臉 ㅅ	密 ㅅㅅ할

(4) ㅅㅈ

국한문	석요	자림	모범	일선
朽 ㅅ을	涖 ㅅ	頽 ㅅ러질	射 ㅅ	櫟 ㅅ매
寫 ㅅ	涑 ㅅㅅ을	苦 ㅅ	蓬 ㅅ	蛻 ㅅ르람이

(5) ㅅㅊ

국한문	석요	한선문	신자전	자림
鹹 ㅅ	披 ㅅ여질	劈 ㅅ길	脰 ㅅ글어질	析 ㅅ겔
皴 ㅅ그릴	裂 ㅅ글	趕 ㅅ출	啄 ㅅ을	刈 ㅅ를

위의 (1), (2), (3), (4), (5), (6)은 일제강점기 한자 사전에 두루 쓰이는 ㅅ계 병서들이다. 이들은 형태상 합용병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음을 표시하는 각자병서에 속한다. 이러한 문자

2) 홍운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6.

3) ㅅㅈ/ㅅㅊ, ㅅ다/ㅅ다, ㅅㅈ/ㅅㅈ.

4) 이 시기의 합용병서는 표기상 합용병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병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와 음소의 모순으로 인해 여러 학자나 단체의 맞춤법 규정에서 수정을 제시하였는데⁵⁾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마침내 이들을 폐기하고, 각자병서 형식인 ‘ㄱ’, ‘ㄷ’, ‘ㅂ’, ‘ㅅ’으로 확정되었다. 1930년대 이후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1938)등의 사전류에서는 경음을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자 사전에 비해 한자 사전이 현실 언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6), (7), (8), (9)는 1938년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1938)의 예이다.

(6) ㄱ	近 가까울	鴉 갈까마귀	蜃 꿈틀꿈틀할	悟 깨달을	蕾 꽃봉오리
(7) ㄷ	溫 따듯할	皖 따일흙	地 땅	落 떨어질	帶 띠
(8) ㅂ	桑 뽕나무	尖 뾰족할	根 뿌리	灑 뿌릴	角 뿔
(9) ㅅ	侶 짝	短 짧을	追 쫓을	秕 쪽정이	刺 찌를

경음 표기에 있어 일제강점기 기타 문헌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와 각자병서를 혼기하는 상황을 보이는데 비해 30년대 이전의 한자 사전에서는 일률적으로 ㅅ계 합용병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한자 사전이 종래의 표기 관습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철, 분철 표기

15세기에 기본적으로 정연성을 유지했던 연철 표기는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문란해져 중철 표기가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중철 표기는 선행 음절말 자음은 형태 음소적 원리에 따라 어간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고, 후행 음절의 어두 자음은 음소적 원리에 따라 발음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⁶⁾ 이런 현상에 대해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자(表記者)들의 어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⁷⁾와 표기법의 혼란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견해⁸⁾가 있다.

개화기에 이르러 전대의 중철 표기에서 분철로 이동하는 추세가 한층 뚜렷하다. 일제강점기 사전의 한글 뜻풀이에는 ‘低, 나줄 【더】’, ‘從, 조출 【중】’, ‘騷, 조흔 말 【도】’ 등의 연철표기는 아주 제한적으로 출현하는 반면 중철과 분철 표기는 대량으로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중철과 분철의 혼재는 개화기의 표기법이 근대국어의 중철 표기를 이어받아 현대국어의 분철 표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양상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⁹⁾

5) 이봉운 『국문정리』(1897), 유길준 『대한문전』(1908), 김희상 『초등 국어어전』(1908), 국문연구소 『의정안』(1909), 김두봉 『조선말본』(1916) 등에서 폐기를 주장하였다.

6) 송미영,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7)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8) 이기문,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총서』, 18권, 한국연구원, 1958.

9) 주3) 참조.

이 시기의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는 아래 (10)의 예처럼 체언과 용언의 표기에서 분철이 주류를 이룬다.

(10) 鴈 기럭이	搔 긁을	蛛 검의	斲 찍을	劈 쪽일
飾 솜일	熙 볏을	薄 얇을	善 착할	少 젊을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형태소 경계나 형태소 내부에서 (11)의 예처럼 여전히 중철표기가 혼재하고 있다.

- (11) 挫
 썩글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의서, 자립, 일선
 썩어질 - 신자전
 꺾을 - 선화
- (12) 束
 묵글 - 국한, 한선, 대해, 자립
 묵스글 - 모범
 못글 - 석요, 일선
- (13) 止
 국칠 - 국한문, 한선, 대해, 자립
 그칠 - 석요, 모범, 일선, 선화
- (14) 如
 갓홀 - 국한
 갓홀 - 석요, 한선, 대해, 자립, 일선
 갓틀 - 모범
 같을 - 선화

(11), (12), (13), (14)는 형태소 경계에서 중철과 분철이 혼재하고 있는 예이다. 중철표기 중에도 어간의 종성과 후속음절의 초성을 동일한 자음으로 표기하려는 추세와 어간의 종성을 7종성법에 의거해 표기하고 후속음절의 초성을 어간의 종성으로 표기하려는 추세가 경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15) 簞
 붓치 - 국한
 붓채 - 자립
 부치 - 한선, 대해, 의서
 부채 - 석요, 신자전, 일선
- (16) 湄다
 국한 - 늪근이
 한선 - 늪그니
 자립 - 늪근계집, 늪근이, 늪글
 대해 - 늪은니

(17) 惜

앗길 - 국한, 한선, 대해, 자림, 일선, 모범

앗가울 - 석요

아낄 - 선화

(15), (16), (17)은 형태소 내부에서 중철과 분철의 표기의 예이다. 이와 같은 표기는 어간을 분명히 밝히고 어간 발음을 표시하려는 음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근대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인 어중의 ㄹㄹ형이 ㄹㄴ과 혼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18)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은 동일 자전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18) 어중의 ㄹㄹ의 표기

홀노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일선, 자림

홀로 - 한선, 신자전, 자림, 대해, 모범, 선화, 의서, 모범

놀날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자림, 의서, 일선, 모범

놀랄 - 대해, 자림, 의서, 모범, 선화, 일선

3) 받침 표기

15세기에는 8종성에 기반을 두고 『훈민정음해례』와 『석보상절』은 음소 위주로 받침을 표기한 반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형태 위주로 받침을 표기하였다. 16세기말에 이르러 받침 ‘ㅅ’과 ‘ㄷ’이 변별적 자질을 잃고 점차 혼기되다가 개화기에는 ‘ㄷ’은 완전히 ‘ㅅ’으로 통일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종성과 복자음 ㄹ, ㄹ, ㄹ, ㄹ이 사용되었다.

(19) ㄷ, ㅌ > ㅅ

若 갓힐(석요)	如 갓틀(모범)	表 갓(대해)	躑 갓는모양(한선)
疰 밋빠질(석요)	躑 갓는모양	信 밋을(국한)	畵 밋기간힐(한선)
瞧 갓눈질힐(대해)	剛 갓셀(대해)	埒 갓은힐(석요)	耕 밋갈(국한)

(20) ㅈ, ㅊ > ㅅ

馨 곳다울(국한)	華 곳방울(대해)	鹽 낫씨슬(한선)	晝 낫(자림)
泮 낫고습할(석요)	昨 낫밖을(자림)	嘍 젓먹일(대해)	𣵵 밋날(국한)
暎 밋칠(한선)			

(21) ㅍ > ㅂ

高 늑힐(국한)	深 김힐(석요)	報 감힐(모범)	澤 늑(대해)
----------	----------	----------	---------

(19), (20)의 예처럼 일제강점기 자전에는 받침 ‘ㄷ·ㅌ·ㅈ·ㅊ’ 등이 후행 음절 자음과 연결될 경우 앞 음절의 받침은 모두 ㅅ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 자전의 일반적인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21)의 경우 받침 ‘ㅍ’이 후행 모음과 결합할 경우 모두 ‘ㅂ+ㅎ’의 형태

10) 송미영,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받침 ‘ㅎ’은 다른 받침과 달리 후속 모음과 결합할 경우 (22)와 같이 대부분 연철 혹은 소멸된 형태 두 종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받침 ‘ㅎ’의 탈락은 일제강점기에 여러 사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ㅎ>ㅎ, ㅇ

善 조홀(한선) 產 나홀(신자전) 放 노홀(국한, 신자전)
放 노을(한선, 석요, 대해, 일선) 失 일을(석요, 한선, 대해, 자림, 신자전)
好 도홀(국한문, 대해), 조을(석요, 일선), 조홀(한선, 신자전, 모범)

4) 사이시옷 표기

15세기에 선후의 음절의 음운 조건에 따라 다양한 문자로 표기되다가 점차 ‘ㅅ’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헌에 따라 상당히 임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이시옷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21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 보인다.

二語가슴하야 複合語를 이루되, 그 사이에 促音現象이 생길 때는 일入군等과 如히 二語의 中間에 ㅅ을 插入하려고 하는 자 잇스나, 本書에 對하야는 各各境遇에 依하야 ㅅ을 上語의 末에, 又は 下語의 初에 附하기로함.¹¹⁾

위의 규정을 통해 복합어 형성과 축음현상이라는 출현 조건과 받침형과 병서형의 표기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1930년의 『언문철자법』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받침의 유무에 따른 사이시옷의 표기 위치를 규정하면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와 달리 받침형과 음절형을 채택하였다.

사이시옷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는 병서형, 받침형, 음절형 사이시옷이 모두 출현하는데 병서형은 『국한문』에만 소수 보이고¹²⁾ 그 외 자전은 음절형과 받

시기	사전명	출현회수
1908	국한문신옥편	-
1909	사전석요	604
1913	한선문신옥편	1000
1913	증보사전대해	648
1915	신자전	-
1921	신정의서옥편	47
1924	자림보주	164
1928	모범사전	222
1931	일선신옥편	262
1938	실용선화대사전	받침형

11)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제14항.

침형이 주류를 이룬다. 아래 표를 관찰해보면 사이시옷의 표기 방식은 시기와 상관없는 단순한 편찬자의 표기 습관에 따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국한문신옥편』과 『신자전』의 경우 음절형 사이시옷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복합어의 형성 과정의 축음현상을 가급적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용선화대사전』의 경우 통용 어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받침형을 사이시옷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사이시옷 표기는 동일한 음운 조건에서 사이시옷의 출현 여부는 상당히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확립된 사이시옷의 전형이 없는 관계로 아래 표의 예처럼 동일 자전 속에서도 받침형, 음절형이 공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전대해』의 괴스대, 살스대, 선짓국, 뒷자락, 『자림보주』의 괴스발, 버스줄기, 췌덩이, 곳집, 뒷자락 등과 같은 예가 다수 보인다.

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자림	모범	일선	선화
旒	괴빨	괴스발	괴스발	괴스발	괴술	괴스발	괴스발	괴스발	기술
筭	살	살스대	살스대	살스대	살대	살대	-	살대	-
稈	버줄기	버스줄기	버스줄기	버스줄기	버대	버스줄기	줄기	줄기	벗집
竿	낙시대	대스줄기	대스줄기	대스줄기	낙시대	대막대	낙시시대	횃대	낙시시대
齧	닛몸	씹을	니몸	니몸	니몸	니스몸	씹을	니스몸	잇몸
峒	-	선지스국	선지스국	선짓국	-	선지스국	-	피국	-
階	섬돌	섬스돌게	섬스돌	섬스돌	섬돌	섬돌	섬스돌	섬스돌	섬돌
礦	쇠돌	쇠스돌	쇠스돌	쇠스돌	쇠돌	췌덩이	쇠스돌	쇠돌	쇠돌
裔	웃깃	뒤스자락	뒤스자락	뒷자락	웃뒤자락	뒷자락	웃깃	뒤스자락	-
櫓	들보	마르스대	마루대	마루스대	대마루	-	-	마루대	-
帘	술발	술스기	술스기	술기	술기	술스기	-	술스기	-

5) ‘·’의 표기

‘·’는 훈민정음에서 가운뎃소리 11자 중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한자 ‘쑤’자의 중성으로 그 음가를 설명하였다¹²⁾. 16세기경에 2음절 이하에서 모음 ‘·’가 ‘ㅏ’, ‘ㅑ’, ‘ㅓ’ 등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중엽엔 어두 음절까지 확대되었다. ‘·’의 소실은 중세에 엄격히 지켜졌던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대립이 무너지면서 비어두 음절의 ‘ㅏ>ㅓ’의 변화와 더불어 모음조화의 균형을 파괴하는 촉매제가 되어 근대국어의 모음조화에 큰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아래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한글 뜻풀이에 나타나는 ‘·’의 표기 상황으로 ‘·’가 한글 뜻풀이와 한자음 표기에 두루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旒 괴빨 【류】, 縵 괴빨 【삼】

13) 『훈민정음 예의』: ‘·’如吞字中聲.

- (23) 仕:벼슬(국한문), 벼살할(석요), 벼슬할(한선문, 대해), 벼슬(신자전, 선화)
 縮:밀(국한문, 한선문), 맬(석요, 대해), 엮을(신자전, 선화)
 桴:호회빌(국한문), 아해벨(석요), 아회빌(한선문, 대해), 아이벨(신자전, 선화)
 軍:군스(국한문, 한선문, 대해), 군사(석요, 신자전, 선화)
 漠:아득할(국한문, 한선문, 대해), 아득할(석요, 선화), 멀(신자전),
 聲:소리(국한문, 한선문, 대해), 소래(석요), 소리(신자전, 선화)
 心:므음(국한문, 한선문, 대해), 마암(석요), 맘(신자전), 마음(선화)
 翼:날기(국한문, 한선문, 대해), 날개(석요, 신자전, 선화)
 柑:감즈(국한문, 한선문, 대해), 감자(석요, 신자전, 일선, 모범, 선화)

‘·’의 표기 양상은 자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글 뜻풀이의 경우 『국한문』·『한선문』·『자전대해』는 모든 음절에 두루 나타나지만 『자전석요』·『신자전』·『실용선화대사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한자음의 표기에 있어서는 『국한문』·『한선문』·『자전대해』·『자전석요』 등은 ‘익·ᄃ14’ 등 제한된 음절에서 주로 ‘·’를 채택하고 있다. 구어에서 이미 변별적 자질을 잃은 ‘·’가 여전히 자전에 출현하는 것은 표기의 관습의 보수성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의 철자법 2항의 한자음 표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ㅏ’로 一定함.

漢字音으로 된 말을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함. 이는 그 韻을 紊亂히 할 憂慮가 잇슴으로써라.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 역시 ‘·’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익’음절의 한자음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

‘ᄃ’를 폐지하나 ‘릭·밈’는 그냥 둔다.

純粹의 朝鮮語에 對하야는 表音的 表記法에 從하야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字音은 歷史的 綴字法에 依하야 립(來), 밈(每)로 書함), ‘ㅏ’로 此에 代함.

이러한 예외 규정은 당시 표기 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한자음 표기에 절충적인 방법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국한문신옥편』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한자자전으로, 한자 석의(釋義)와 한자음에 대해 『전운옥편』(1796?)을 그대로 수용한 까닭에 한자음 표기상 보수적인 색채를 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관습적인 표기 방식은 현실 언어의 음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표기법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와 ‘ㅏ’의 혼기(混記) 상황은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1933년의 『마춤법 통일안』에 와서야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불문하고 종래의 ‘·’는 ‘ㅏ’로 표기한다는 규정을 채택하여 ‘·’의 음소로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표기상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그 이후 출판된 한자자전에서 ‘·’의 출현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4) ‘ᄃ’음절은 주로 정계자(精系字)인 ‘事·士·四·司·士·斯·字·子·慈·自·次·此’ 등등이다.

6) 구개음화 표기

구개음화는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설단치조 파열음 ‘ㄷ’, ‘ㅌ’, ‘ㄴ’ 등이 모음 ‘[i]’ 혹은 반모음 ‘[j]’ 앞에서 발음 부위가 이동하여 구개음 ‘ㄷ’, ‘ㅌ’, ‘ㄴ’이 되거나, ‘ㄷ’ 뒤에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이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음운현상은 임진왜란 이후 문헌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⁵⁾ 16세기 후반의 신증유합(1576)에서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이후 『두시언해』 중간본,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역어유해』 등 많은 문헌에서 두루 보였으며 19세기에는 이미 보편적인 규율로 정착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국한문신옥편』 및 후속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일부 한글 뜻풀이에 구개음화 전후의 두 종류의 표기 형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전	笛	殿	點	蚯	體	剔
국한문	더【덕】	집【던】	점칠【덤】	디렁이【구】	몸【테】	굶을【턱】
석요	저【적】	전각【전】	점【점】	지렁이【구】	몸【체】	살쌍글【척】
한선문	더【덕】	던각【던】	덤【덤】	디렁이【구】	몸【테】	굶을【척】
대해	더【덕】	전각【전】	덤【덤】	디렁이【구】	몸【테】	살쌍글【척】
신자전	더【덕】	던각【던】	검은덤【덤】	지렁이【구】	몸【테】	쌔바를【턱】
자림	저【적】	전각【전】	점【점】	지렁이【구】	몸【체】	살쌍글【척】
일선신	저【적】	전각【던】	덤【덤】	지렁이【구】	몸【테】	살쌍글【턱】
모범	피리【적】	전각【전】	점【점】	지렁이【구】	몸【체】	살쌍글【척】
선화	저【적】	대궐【전】	검은점【점】	지렁이【구】	몸【체】	쌔바를【척】

이러한 혼란한 양상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진 뜻풀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표기법 규정의 미비와 연관이 있는데,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 ‘ㅌ, ㄴ, ㄷ’를 제외한 모음 앞에서 모두 구개음화된 것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¹⁶⁾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는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구분하여 우리말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한자음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¹⁷⁾ 1930년대에 이르러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에 구개음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기법에서 구개음화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으로 정착하였다.

15) 김혜영, 「국어음운 동화의 통시적 연구」, 경남대학 박사논문, 1996.

16)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ㄷ行 及 ㅌ行은 ㅌ列·ㅌ列·ㅌ列·ㅌ列만을 使用하고, 其他列에는 ㄷ行 及 ㅌ行을 使用함”

17) 六.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代表的 表記法에 從하야 ‘다·더·타·터·토·투·티’를 ‘자·저·주·지·차·초·추·치’로 書하고 ‘샤·셔·쇼·슈’를 ‘사·서·소·수’로 書함. (例)덜→질, 돛소→죇소, 딜→질, 쇼→소.

七. 漢字音에 對하야는 歷史的 表記法에 從하야 ‘다·더·토·투·디·타·터·토·투·타·샤·슈·자·저·조·쥬’ 등을 그대로 보존함. (例)덩녕(丁寧), 텃디(天地), 죠석(朝夕)

7) 두음법칙 표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ㄱ, ㅋ, ㆁ’ 앞의 ‘ㄷ’과 ‘ㄴ’이 ‘ㅇ’이 되고, ‘ㄱ, ㆁ, ㄷ, ㅌ, ㅍ, ㅊ, ㅍ’ 앞의 ‘ㄷ’은 ‘ㄴ’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두음법칙 표기 양상이다.

(24) 어두 ‘ㄴ’

姆:계집(국한문), 녀와사시(석요, 대해), 여와사시(한선문), 계집이름(신자전)
 夏:너름(국한문), 녀름(석요, 한선문, 대해), 여름(신자전), 녀름(모범)
 姆:계집스승(국한문), 녀스승(석요, 한선문, 신자전, 모범)
 虞:나라(국한문), 녀려할(석요, 신자전), 녀려홀(한선문), 생각할(선화)
 古:네(국한문, 대해), 예(석요, 한선문, 신자전, 선화)
 額:니마(국한문, 석요, 대해), 이마(한선문, 신자전, 선화)
 續:니을(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모범), 이을(신자전)
 葉:넙(국한문), 넙싸귀(석요), 넙사귀(한선문, 모범), 입사귀(대해), 입(신자전)

(25) 어두 ‘ㄷ’

羿:리일(국한문, 한선문, 대해), 래일(석요, 모범), 이튼날(신자전)
 蓮:련(국한문), 련실(석요, 한선문, 대해), 련밥(신자전), 연꽃(선화)
 疏:류황(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석류황(신자전), 유황(선화)
 蘭:란초(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난초(선화)
 糧:량식(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양식(선화)
 閣:집(국한문, 모범), 루각(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璃:류리(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유리(선화)
 利:리홀(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리할(신자전), 이할(선화)

(24), (25)는 ‘ㄴ’, ‘ㄷ’이 다른 음소와 마찬가지로 ‘[i]’·‘[j]’ 앞에 자유롭게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동일 음운 조건 하에서 ‘ㄴ’이 탈락되지만 일제강점기 자전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두의 ‘ㄴ’이 [i], [j] 앞에서의 탈락 시기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그 하한선을 18세기말로 보는 것이 국어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표기는 언어 발전의 시대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철자법 중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기가 반드시 실제 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3). 漢字音으로 된 語를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特히 從來의 綴字法을 採用함.¹⁸⁾

三. 純粹의 朝鮮語中 語頭に 잇는 ‘니·녀’ 등은 ‘이·여’와 如히 發音함이 多하나 他語의 下에 着하여 熟語를 成하는 境遇에는 ‘ㄴ’음이 復活하게 됨이 多한 故로 此等은 全部 ‘니·녀’로 書하기로 함.

(例) 녀름(夏), 넙(側), 네(昔), 닉을(熟), 님을(着,被), 니을(連續), 니을(忘), 닐 어날(起), 님금

18)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12.

(皇), 리일(來日)¹⁹⁾

四.漢字音의 頭音이 ㄹ인것은 發音의 如何를 不拘하고 恒常 ㄹ로 書함.

(例) 란초(蘭草), 룡산(龍山), 리익(利益), 리일(來日)²⁰⁾

위의 규정을 통해 두 차례의 표기법 수정에서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각각 구분해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의 경우 현실 언어에서 어두의 ‘ㄴ’이 ‘ㅇ’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자어의 경우 발음 실제 발음과 무관하게 역사적 철자법²¹⁾을 적용해서 ‘ㄹ’로 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혼란은 두음법칙이 근대국어 후기에 보편화된 음운현상이라는 점과 각 방언간의 음운변천의 속도 불균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자음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42.‘나, 너, 노, 뉴, 니, 네’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여자, 요도, 육혈, 이토, 예묘.

43.‘랴, 려, 료, 류, 리, 레’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양심, 역사, 요리, 유수, 이화, 예의

44.‘라, 러, 로, 루, 래, 뢰’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낙원, 노인, 누각, 능묘, 내일, 녀성.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준말의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에 한자어에 적용하던 전통적인 철자법을 폐기하고 순수 조선어와 한자어에 통일된 두음법칙이 적용된 결과를 표기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의 한자자전에는 두음법칙이 보편적인 규칙으로 정착되어 이를 적용한 자전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일제강점기 철자법의 혼란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현대국어 표기법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8) 단모음화

a. ‘의>이’의 단모음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표기법 중 이중모음 ‘의’ 분포는 현대국어와 비교하면 상당히 광범위하다. 국어 음운변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의’의 단모음화 현상은 19세기 초의 문헌에서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말경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자전의 ‘의’의 표기상의 분포는 뜻풀이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자전을 예로 들면 아래표와 같다.

19)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20)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21) 18세기 이래로 가장 권위 있는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가리킴.

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자전대해	신자전	선화
斧	독기	독기	독기	독기	독기	도끼
枸	구기즈	구기자	구기즈	구기즈	구기자	구기자
芬	꽃다을	향기	향기	향기	향기	향기
韃	그닉	그닉	그네	그닉	그네	그네
猜	식기	시기할	식기홀	식기홀	시기할	샘낼
螢	반딧	반딧불	반딧불	반딧불	반딧불	빈딧불
蜘蛛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鋤	허미	호미	호미	흙미	호미	호미
嫁	식집갈	시집갈	시집갈	식집갈	식집갈	시집갈
姑	식어미	시어미	시어미	식어미	시어머니	시어미
塵	씩쓸	씩쓸	씩쓸	씩쓸	씩쓸	티끌
妹	누의	아래누의	아리누의	아리누의	논알에누의	손아랫누이

일제강점기 초기의 자전에서 대부분의 자음 아래에 분포하던 이중모음 ‘의’가 점차 단모음화하면서 30년대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에서는 완전히 ‘이’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근대국어의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이중모음 ‘의>이’의 변화 추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b. 치음 아래의 단모음화

치음 ‘ㄴ’, ‘ㄷ’, ‘ㄸ’ 아래에서 ‘야’, ‘여’, ‘요’, ‘유’의 단모음화는 이미 18세기의 문헌에 광범위하게 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자전의 표기 상황을 분석하면 이러한 음운변화는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일선	선화
島	섬	섬	섬	섬	섬	섬	섬
靴	북	소고	쇼고	쇼고	소고	소고	-
簌	통쇼	대통소	디통쇼	대통쇼	대통소	통소	-
妯	동서	동서	동서	동서	동서	동서	동서
京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立	설	설	설	설	설	설	설
嘲	조롱	조롱할	조롱홀	조롱홀	조롱할	조롱홀	조롱할
癰	헌디	종기	종기	종기	등창	등창	등창
鍾	저울추	저울추	저울추	저울추	저울추	저울추	저울추
砂	쥬사	주사	쥬사	쥬사	쥬사	모래	주사
佛	부처	부처	부처	부처	부처	부처	부처
初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침	처음	처음
敷	-	북처음칠	북처음칠	북처음칠	-	북칠	-
韶	니갈	니처음갈	니처음갈	니처음갈	니갈	니갈	-

편찬자의 출신지역이나 편찬시기와 상관없이 단모음화 여부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혼재되어 있다. ‘初’자의 경우 모든 자전이 단모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敝’·‘韶’자의 뜻풀이에서는 ‘처음’과 ‘처음’이 뒤섞여있다. 심지어 동일 자전 속에서도 이들 이중모음의 표기가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미 변별적 자질을 잃어버리고 단지 편찬자의 표기상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한자음의 표기와 관련이 있는데,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비록 표음주의 원칙을 따랐지만, 서언 3항 3조에 별도로 ‘漢字音으로 된 語를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特히 從來의 綴字法을 採用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한자음에 대해 종래의 현실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자전이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고수하고 있는데, 『전운옥편』의 한자음은 한글 뜻풀이와 달리 여전히 처음 아래 이중모음 표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불일치는 1930년 『언문철자법』에 와서 비로소 단모음 표기로 통일되었다.²²⁾

9) 장단음 표기

15세기에 중국 음운학의 사성체계에 입각하여 『훈민정음』에서는 국어에 적용시켜 글자의 왼쪽에 점을 붙여 음절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성체계는 언어체계가 다른 국어에는 적합하지 않아 17세기에 이르러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방점은 우리말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세 차례의 『언문철자법』에도 음절의 고저와 장단에 관한 명확한 표기 규정이 없었기에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절의 고저와 장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식영은 표기법에 음의 고저와 장단에 대한 표기를 제기하고 국문론(1896), 신정국문(1905), 언문(1909) 등에 점으로 어음의 높이를 표시하였고 둥근 권점으로 길이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전석요』(1909)에도 이것을 적용시켰는데 『자전석요』의 범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글의 표음은 『소학언해』의 범례를 따르되, 상성과 거성은 옆에 점 하나를 찍고, 평성과 입성 두 성조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어 간편함을 추구하고 또한 모든 단어의 장음에도 점 하나를 찍는다.²³⁾

위의 범례를 적용시킨 결과 『자전석요』의 한자음 표기는 (26)의 예와 같이 결과적으로 평측을 기준으로 평성은 무점으로 짧게 읽고 측성은 방점을 찍어 길게 읽는데 입성의 경우 받침으로 쉽게 구별되기에 별도로 방점을 찍지 않고 길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뜻풀이에도 이를 적용시켜 어휘 중의 예성(曳聲)²⁴⁾에도 방점을 찍어 장음을 표시하였다.

22) 『언문철자법』 총설 3항에 ‘諺文綴字法은 純粹한 朝鮮語와 漢字音과를 不問하고 發音대로 表記함을 原則으로 함. 但 必要에 應하여 若干의 例外를 設함.’이라고 규정하였다.

23) 『자전석요·범례』: 諺文釋音參酌小學諺解凡例, 上聲去聲字傍加一點而平入兩聲人所易曉, 故闕之, 以從簡便. 凡係做語之曳聲處亦加一點.

24) 장음을 가리킴.

- (26) 光, **광** 輝耀. 빛날 **【광】**。(陽)。充全。
 廣, **광** 濶也. 넓을 **【광'】**。(養)。橫量. 넓의 **【광'】**。(漾)。
 小, **소** 微也. 적'을 **【소'】**。(篠)。
 多, **다** 衆也. 만'을 **【다】**。○勝也. 승'할 **【다】**。(歌)。

중국어의 성조는 계통이 다른 국어에서 장단으로 표현된 것으로 실험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장단과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일 음량으로 고음을 발성하게 되면 음의 길이는 짧게 되고 반대로 저음을 발성하게 되면 길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전석요』의 장단음의 구별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희박해져가는 국어의 장단음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맺는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대상으로 한글 표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의 표기 양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경음 표기

어두 합용병서 시, 씨, 새, 쓰, 쓰만 보이고 ㄴ계 병서인 ㅁㅅ, ㅁㅈ, ㅁㅊ은 이미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930년대 이후의 사전류에서는 ‘ㄱ·ㄷ·ㅁ·ㅅ·ㅈ·ㅊ’ 형식의 각자병서 방식으로 경음을 표기하였다.

(2) 중철, 분철의 표기

중철 표기에서 분철로 이동하는 과도기인 양상을 띠고 있다. 체언과 용언의 표기에서 분철이 주류를 이루지만 상당수의 경우 형태소 경계나 형태소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철표기가 혼재하고 있다.

(3) 받침 표기

일제강점기의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종성과 복자음 ㄹ, ㄹ, ㄹ, ㄹ이 사용되었다. 받침 ‘ㄷ·ㅌ·ㅈ·ㅊ’ 등이 후행 음절 자음과 연결될 경우 앞 음절의 받침은 모두 ㅅ으로 표기되고 있다. 받침 ‘ㅇ’이 후행 모음과 결합할 경우 모두 ‘ㅂ+ㅇ’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받침 ‘ㅎ’은 다른 받침과 달리 후속 모음과 결합할 경우 대부분 연결 혹은 소멸된 형태 두 종류로 나타난다.

(4) 사이시옷의 표기

체대로 된 사이시옷의 규정이 없어 편찬자의 표기 습관에 따라 병서형, 받침형, 음절형 사이시옷이 모두 출현한다. 심지어 동일 자전 내에서도 받침형과 음절형이 혼재하고 있다.

(5) ‘·’의 표기

‘·’의 표기 상황으로 ‘·’가 한글 뜻풀이와 한자음 표기에 두루 쓰이고 있다. 한글 뜻풀이

의 경우 『국한문』·『한선문』·『자전대해』는 모든 음절에 두루 나타나지만 『자전석요』·『신자전』·『실용선화대사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구어에서 이미 변별적 자질을 잃은 ‘·’가 여전히 자전에 출현하는 것은 표기의 관습의 보수성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와 ‘ㅏ’의 혼기(混記) 상황은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1933년의 『마춤법 통일안』에 와서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에서 ‘·’의 음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한자자전에서 ‘·’의 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6) 구개음화 표기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국한문신옥편』 및 후속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일부 한글 뜻풀이는 구개음화 전후의 두 종류의 표기 형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구분하여 우리말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한자음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두음법칙 표기

‘ㄴ’, ‘ㄷ’이 모음[ɪ]와 반모음[j] 앞에 자유롭게 출현하고 있지만 실제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철자법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각 방언간의 음운변천 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단모음화 표기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에서 이중모음 ‘의’ 분포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언어 발전의 통시성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자전의 ‘의’의 표기상의 분포는 뜻풀이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치음 아래의 ‘ㅑ·ㅕ·ㅛ·ㅠ’ 등의 복모음 표기는 동일 자전에서 조차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편찬자의 표기상의 습관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의 표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9) 장단음 표기

소수 자전에서 중국어의 성조 관념에서 시작된 중세국어의 성조표시를 한글 뜻풀이에 적용시켜 국어의 장단음을 표시함으로써 당시 구어의 장단음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자 자전의 표기법 양상은 근대국어 후기와 현대국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는 국어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반해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한자의 자종(字種)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 표기 양상과 특징 고찰은 한글 표기법 형성과정과 현대국어 표기법 연구에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동언, 「개화기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제4집, 국립국어연구원, 1999.
- 김혜영, 「국어음운 동화의 통시적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1996.
- 나윤기, 「국한문신옥편 자석연구」, 『중국언어연구』, 제65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 리의도,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 『한글학회』, 제301집, 한글학회, 2013.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도서출판 역락, 2012.
- 송미영,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신유식, 「개화기 국어 표기 연구」, 『어문논총』, 제10집, 청주대학교, 1994.
- 이기동,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현상」, 『한국학연구』, 제6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 이기문,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총서』, 제18권, 한국연구원, 1958.
- 이병근, 「개화기의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제4집, 국어연구소, 1986.
- 이응백, 「일정시대의 국어 표기법」, 『국어생활』, 제9집, 국어연구소, 1987.
- 이익섭, 「근대국어 표기법의 성격과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1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993.
- 정길남, 「갑오경장 전후의 문자 사용 양상」, 『새국어생활』, 제4권, 국립국어연구원, 1994.
- 정승철,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제4집, 국립국어연구원, 1999.
- 하영삼, 「韓國近代時期十種代表漢字字典的編纂與特徵」, 第27屆中國文字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 한국한자연구소, 2016.
-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日帝强占期 漢字字典, 韓文字釋, 綴字法,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영문	Hanja Dictionary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Korean Translation of a Chinese Character, Korean writing system, <i>Gookhanmun-shinokpyeon</i> , <i>Jajenseokyo</i> , <i>Sinjazeon</i>		
<div>The aspect of Korean writing system under Japanese colonization</div> <div>Na, Yun-Ki</div> <div>Korean languag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hich is the transition period that connects post-modern with modern is characterized by its mixed orthography that appear in both periods. The orthography shown in the definitions written in Korean in the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that is modernistic and published in this period represents the process that modern Korean language orthography is progressively formed. This paper aims to connect the definitions in Korean in the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Korean phonological phenomenon to examine the notational patters and characteristics and shed new light on the value and periodic status of then-Chinese character dictionary as academic data.</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나윤기 / 羅潤基 / Na, Yun-Ki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Em@il	nayungi@hanmai.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